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정성욱 역)

길잡이글 · 논의: 은혜로운 감정의 열두 가지 표지

『신앙감정론』 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2절 「논의: 은혜로운 감정의 열두 가지 표지」, 인쇄 26~73쪽

🧭 흐름 한눈에

스미스는 먼저 이 책이 왜 어렵고, 그런데도 왜 에드워즈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읽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다음 에드워즈의 출발점을 짚습니다. 부흥 속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었고, 에드워즈는 둘을 가를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1부에서는 '감정'을 다시 정의합니다. 감정은 지성과 맞서는 기분이 아니라, 이해에 뿌리를 두고 생생하게 움직이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특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2부의 소극적 표지에서는 체험의 순서나 다른 성도들의 인정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정리합니다. 3부의 열두 가지 적극적 표지는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머무르시며 그 본성을 바꾸신다는 원리입니다. 표지는 첫째 표지(초자연적 근원)에서 시작해 열두째 표지(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끝납니다. 스미스는 행위를 가장 중요한 표지로 세운 것이 이 책의 대담한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성경 표 안내: ◎는 길잡이글이 직접 인용하거나 가리킨 구절입니다. ○는 길잡이글이 주제만 말하고 장절은 적지 않아 정리자가 붙인 관련 구절입니다. ○ 구절은 대본에 쓰기

📜 1. 이 책은 왜 어렵고, 무엇을 묻는가

스미스는 『감정론』이 깊은 신학서이면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가 읽기 어려워했고, 그래서 여러 편집자가 본문을 고쳐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도 정확히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진짜 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드워즈는 생명에 관한 진리를 생기 없는 말로 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교리와 문체를 일치시켰습니다. 위선자는 화려하게 타오르다 금방 떨어지는 유성이고, 참된 성도는 한결같이 빛나는 별이라는 비유가 그 예입니다. 이 책의 중심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별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곧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에드워즈를 괴롭힌 문제는 부흥 속에, 그리고 한 성도 안에도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웨슬리가 에드워즈더러 이 사실을 놓쳤다고 비난했지만, 에드워즈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이전 글들이 부흥운동 전체의 운명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한 사람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에 집중합니다.

1. 쉽게 바꿔 읽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2. 머리의 동의를 넘어 고백하는 믿음
3. 교리와 문체가 같은 말을 한다
4. 위선자는 유성, 성도는 별
5.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현실이 출발점

> **마태복음 13:30** ○
> “알곡 사이 가라지” — 섞여 있는 부흥 현실의 그림

> **유다서 1:13** ○
>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유리하는 별' — 위선자 비유와 닿는 구절

> **요한일서 4:1** ○
> '영들을 분별하라' — 책 전체가 이 분별의 과제다

📜 2. 감정이란 무엇인가 — 지성과 마음, 감정과 격정

에드워즈의 첫 본문은 베드로전서 1:8입니다. 박해받던 성도들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시련 속에 드러나는 참 신앙의 모델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교리를 이끌어 냅니다. 에드워즈는 사람 안에 두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고 생각하는 '지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상에 끌리거나 싫어하게 되는 '성향'입니다. 성향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의지', 생각 속에서 드러나면 '마음'이라 부릅니다. 이 성향이 무덤덤하지 않고 생생하게 움직일 때가 '감정'입니다. 그러니 감정은 이해 없는 맹목이 아니고, 머리와 반대되는 가슴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관찰자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의 차이가 지성과 의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 에드워즈는 감정과 '격정'을 구별합니다. 격정은 자제력을 잃고 대상에 끌려가는 상태이고, 감정은 맑은 이해와 자기 통제를 동반합니다. 이 구별 덕분에 그는 부흥 현장의 히스테리와 극단적인 몸의 반응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고 그가 지성을 버린 열광을 변호한다고 오해했습니다.

1. 감정 = 생생하게 움직이는 성향
2. 감정은 이해에 기초한다
3. 마음과 머리는 반대말이 아니다
4. 격정은 통제를 잃고, 감정은 통제한다
5. 감정의 자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

> **베드로전서 1:8** ◎
> 책 전체의 첫 본문.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함 = 참 신앙의 모델

📜 3.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마음의 믿음, 곧 자아 전체가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끌리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인간 삶에서 '미지근함'이 가장 용납되지 않는

신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감정 가운데 하나이면서 모든 감정의 원천입니다. 소망, 기쁨, 두려움, 열심, 긍휼은 이 사랑에서 흘러나온 열매입니다. 반대로 죄의 본질은 '마음의 강퍅함'이고, 에드워즈는 이를 '감화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처럼 강퍅한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사랑이 참 신앙의 표지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에드워즈는 '대부분'이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과업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신앙에서 빼려는 사람들에 맞서 감정을 변호하는 일, 그리고 광신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참과 거짓을 가를 기준을 주는 일입니다.
에드워즈는 사탄이 양쪽에서 일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거짓 감정이라는 가라지를 심고, 그 반작용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감정 자체가 악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 승인만으로는 부족, 감화되어야 한다
2. 감정 없이 큰 변화는 없었다
3. 사랑은 모든 감정의 샘이다
4. 죄의 본질은 감화되지 않은 강퍅한 마음
5. 감정 '지지'도 '반대'도 아닌 '분별'

> **요한계시록 3:15-16** ○
> 미지근함을 토해 내심 — 신앙은 미지근할 수 없다

> **에스겔 36:26** ○
> 굳은 마음 대 부드러운 마음 — 강퍅함이 참 신앙의 반대

> **출애굽기 7:13** ○
> 바로의 완악한 마음 — 사랑 없는 마음의 실례

> **고린도전서 13:1-3** ○
>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 — 거룩한 사랑이 신앙의 본질

> **로마서 8:23** ○
> 성령의 '첫 열매' — 하나님과 잇는 근본 감정인 사랑

> 성령의 '인 치심' — 같은 근본 관계를 가리킴

“모든 참된 신앙의 본질은 거룩한 사랑에 있다”

📜 4. 2부 소극적 표지 ① — 체험의 '순서'는 증거가 아니다

2부의 소극적 표지는 감정이 은혜로운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부족한 표지들입니다. 이런 표지는 참 믿음이 없는 곳에도 있을 수 있고, 참 믿음이 있는 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거나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 논리로 반박됩니다. 스미스는 특히 중요한 논점 두 가지를 꼽는데, 첫째가 '순서'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깨닫고 두려워한 뒤 복음으로 위로받는 예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위로가 두려움 뒤에 왔다고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거쳤다고 진짜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참된 죄의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부패가 성령의 준비시키는 일을 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이것입니다. 사탄은 순서는 흉내 낼 수 있지만 본질은 흉내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에드워즈가 “구원은 정해진 단계를 밟는다”는 많은 청교도의 도식을 부정하고, 체험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회심의 '법칙'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정리합니다. 에드워즈는 부흥 기간에 직접 관찰한 사례를 근거로 성령이 일정한 순서에 묶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 두려움 뒤의 위로, 의심할 이유 없음
2. 그렇다고 진짜라는 증거도 아님
3. 사탄은 순서는 흉내 내도 본질은 못 낸다
4. 회심에 정해진 공식은 없다
5. 열매의 본질을 보라, 방식을 보지 말라

> **고린도후서 13:5** ○
>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 시험의 대상은 열매의 본질이지 경로가 아님

"마귀가 신적인 사건의 순서보다도 그 본질을 모방하기가 더 어렵다"

📜 5. 2부 소극적 표지 ② — 경건한 성도들의 인정도 증거가 아니다

두 번째 논점은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를 참 신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증거가 되느냐입니다. 에드워즈의 답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자기 안의 믿음은 경험으로 알지만,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6:7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영을 시험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구할 수 있지만 남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성도로 받아들이는 근거인 '눈에 보이는 공적 사랑'도 최종 판단의 근거는 아닙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것이 훗날 에드워즈가 성찬 참여에 신앙고백과 회심 경험을 요구한 입장과 모순된다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을 확실히 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부의 시작에서도 에드워즈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양과 염소를 완벽히 가르는 규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1. 남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신다
2. 표지는 자기 점검용이다
3. 교회의 인정 ≠ 속마음을 확실히 앎
4. 고백을 요구하는 것과 판단은 다르다
5. 양과 염소를 완벽히 가르는 규칙은 없다

> **사무엘상 16:7** ◎
>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 — 남을 최종 판단할 수 없는 근거

> **마태복음 13:30** ○
>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 교회 안 구별의 한계

📜 6. 3부 들어가기 — '표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나

3부는 책에서 가장 긴 부분이고, 열두 가지 적극적 표지를 다룹니다. 스미스는 독자가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지라는 말의 뜻, 각 표지 뒤의 원리, 그리고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사용법입니다. 에드워즈는 스토다드와 셰퍼드 등 여러 저자를 인용하지만, 그것은 자기 입장을 확인하고 예를 들기 위해서이지 사상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론이 성경에 뿌리를 둔다고 확신했습니다. 표지는 자기 점검에도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사람은 약하고, 판단의 눈이 가려지거나 영적 상태가 냉랭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확실하지만 적용에는 늘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표지는 우리 인식 쪽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보면 성령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어떤 표지는 감정 자체(10째)를, 어떤 표지는 감정의 근거(6째)를, 어떤 표지는 감정의 결과(12째)를 봅니다. 에드워즈는 표지들끼리의 관계, 곧 몇 개가 있어야 충분한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그 실마리를 하나의 공통 원리에서 찾습니다. 성령이 밖에서 잠깐 작용하시는 '일반적 사역'과 달리, 구원하는 사역에서는 신자 안에 머무시며 그 본성에 맞게 일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분명한 첫째, 넷째, 일곱째 표지를 더 근원적인 표지로 볼 만하다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1. 법칙은 확실, 적용은 오류 가능
2. 표지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킨다
3. 감정 자체/근거/결과를 보는 표지들
4. 공통 뿌리: 성령의 내주
5. 1·4·7째 표지가 더 근원적

> **사무엘상 16:7** ◎
> 다시 확인 — 표지는 이웃 판정용이 아님

> **고린도후서 13:5** ○
> 표지의 바른 용도는 자기 시험

참된 감정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에서 나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몸과 대비되는 영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육적'(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반대인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거듭난 사람 안에 그 본성에 맞게 머무르십니다. 자연인에게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를 거처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에드워즈는 빛 비유를 씁니다. 바깥 빛을 받아 반사하는 물체는 '빛나는 물체'라 하지 않고, 빛이 그 내부의 구성 요소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감각'이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 기능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지성과 의지가 새롭게 움직이게 하는 새 토대가 놓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자아 전체에 미칩니다. 이 기준으로 에드워즈는 부흥의 오용을 비판합니다. 생생한 상상, 자기에게 말하는 듯한 음성,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성경 구절, 숨겨진 일의 계시 같은 '기적 같은' 현상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에는 새 본성이 필요하지도 않고, 새 본성을 드러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은혜는 마술이 아니라 중생이며, 에드워즈는 결코 열광주의자가 아니었다.

1. '영적' = 거룩한 (몸의 반대가 아님)
2. 성령은 성도 안에 머무르신다
3. 새 기능이 아니라 새 토대
4. 중생은 자아 전체를 바꾼다
5. 음성·환상·떠오른 구절은 증거 아님

> **고린도전서 2:14** ○
>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함 — 영적/육적의 구분

> **요한복음 3:6** ○
> 영으로 난 것은 영 — '영적'은 성령에게서 난 것

> **고린도후서 5:17** ○
> 새로운 피조물 — 초자연적 새 감각, 새 창조

📜 8. 둘째·셋째 표지 — 하나님 그 자체, 거룩함의 아름다움

둘째 표지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자기 사랑을 배제하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의 요점은 하나님을 내게 주실 혜택과 상관없이 '그분 자체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는 혜택을 깎아내리지 않고, 감사 속에 자기 사랑이 섞여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의 근본 토대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은 자연인도 가진 본성적 성향이라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이 생각을 플라톤, 스피노자, 칸트의 비슷한 주장과 나란히 놓습니다. 요한일서 4:19가 반대 근거처럼 보이지만 에드워즈가 이 구절을 다룬다는 것도 소개합니다(스미스는 그 답이 난해하다고 평합니다). 셋째 표지는 여기에 '도덕적 탁월성의 사랑스러움'을 더합니다. 에드워즈는 능력이나 지식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구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맛보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새 감각'입니다. 스미스는 이 새 감각을 에드워즈 전체 작품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점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감정은 “나에게 유익하다”에서 왔는가, 아니면 “그분이 거룩하고 아름답다”에서 왔는가?

1. 받을 혜택보다 그분 자체를 사랑
2. 감사 속 자기 사랑은 인정, 토대는 아님
3. 거룩함 =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
4.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
5. 새 감각이 그 아름다움을 맛본다

> **요한일서 4:19** ◎
> “그가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 둘째 표지에 대한 반론처럼 보여 에드워즈가 직접 다룸

> **시편 96:9** ○
> '거룩함의 아름다움'(KJV) — 셋째 표지의 핵심 표현

> **고린도전서 2:14** ○
>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됨 — 아름다움은 새 감각으로만 보임

📜 9. 넷째·다섯째 표지 — 영적 이해와 확신

넷째 표지에서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이 “빛 없는 열이 아니라” 이해와 빛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머리와 영성을 맞세우는 부흥운동의 반지성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빛나는 얼굴을 보는 환상, 갑자기 떠오른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아끼신다고 여기는 감정은 '헛된 상상'입니다. 감정의 근거는 오직 뜻과 앎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앎이 교육으로 늘어나는 개념 지식은 아닙니다.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새 감각을 포함한, 대상에 참여하는 앎입니다. 아무도 대신 가져다줄 수 없고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스미스는 촌시 같은 사람들이 이를 '머리 대 가슴'의 대결로 오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에드워즈는 그 대립을 넘어 조명된 지성 안에 이미 가슴의 감각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표지는 확신입니다. 참된 감정은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동반합니다. 이 확신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함이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 '직접성'은 성령이 이해 없이 의지를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판단의 확신은 지성이 조명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추론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길고 복잡한 논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주변 정황이 아니라,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1. 거룩한 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니다
2. 환상·떠오른 구절은 앎이 아니다
3. 영적 지식은 맛보아 아는 지식
4. 머리 대 가슴의 대립을 넘어선다
5. 확신은 복음의 영광을 볼 때 생긴다

> **빌립보서 1:9** ○
>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짐 — 감정은 앎에서 나옴

> **고린도후서 4:6** ○
> 그리스도 얼굴의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 확신의 근원

> **마태복음 16:17** ○
>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심 — 직접 주어지는 확신

> **고린도전서 2:14** ○

📜 10. 여섯째·일곱째 표지 — 복음적 겸손과 본성의 변화

여섯째 표지의 요점은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의 대조입니다. 율법적 겸손은 양심이 고발당해 억지로 끌려 나온 낮아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적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이 스스로 기꺼이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를 자기 부인과 연결합니다. 세상적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자기 부인조차 '내 업적'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오히려 신앙에 열심인 사람에게 생깁니다. 남과 비교해 내가 낫다고 여기고, 내 영적 성취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자기가 탁월한 성도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표지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회심은 문자 그대로 '방향을 돌림'이고, 삶의 새 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정확한 '순간'을 캐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성은 지속됩니다. 옛 죄와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지배력은 깨졌고, 변화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납니다. 한 시간 뜨겁게 하고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감정은 은혜가 아닙니다.

1. 억지로 눌린 겸손 대 기꺼운 겸손
2. 자기 부인도 자랑이 될 수 있다
3. 영적 교만은 열심인 사람의 유혹
4. 회심 '순간'은 몰라도 된다
5. 진짜 변화는 오래 간다

> **이사야 57:15** ○
>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심 — 복음적 겸손의 자리

> **누가복음 18:11** ○
>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 영적 교만의 전형

> **고린도후서 5:17** ○
> 새 피조물 — 회심은 본성의 변화

>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 지속되는 쇄신

📜 11. 여덟째~열한째 표지 — 그리스도를 닮음, 균형, 더 큰 갈망

여덟째 표지는 사랑, 온유, 평온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아홉째 표지는 부드럽고 다정한 심령입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산상수훈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로 끌어옵니다. 스미스는 이 두 표지와 열두째 표지가 책의 윤리적 부분, 곧 성도가 세상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그린다고 봅니다. 열째 표지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소망은 공경을 잃습니다. 참 성도는 첫 위로 이후에도 죄를 계속 애통하지만, 위선자는 첫사랑 뒤에 회개가 더는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이상한 치우침'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과시하면서 이웃은 질투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웃에게는 친절하나 하나님 사랑은 없는 사람, 자기 편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불붙는 발작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한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로운 감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더 볼수록 그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감정은 이미 상을 다 받은 듯 만족하고, “첫사랑과 과거의 높은 체험에 기대어” 삽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결정적인 원리를 짚습니다. 감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1. 온유·사랑·다정함이 참 감정의 모습
2.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간다
3.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4. 갈수록 더 목마르다
5.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 **마태복음 11:29** ○
>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 여덟째 표지의 모범

> **마태복음 5:5** ○

호세아 7:8 ○

뒤집지 않은 전병 — 한쪽만 익은 불균형한 신앙

유다서 1:13 ○

유리하는 별 — 유성 같은 위선자 대 붙박이 별 같은 성도

빌립보서 3:13-14 ○

뒤엣것을 잊고 앞으로 달려감 — 만족이 아닌 갈망

📜 12. 열두째 표지 — 그리스도인의 행위

에드워즈는 이 표지에 가장 많은 지면을 쓰고 이것을 “모든 표지 중 으뜸”이라 부릅니다. 행위는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이 이웃을 판정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행위는 남의 눈에 보이는 최선의 증거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행위가 “말보다 더 낫고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행위가 기독교 원리에 맞아야 하고, 믿음의 행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하며, 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비평가들은 새 본성이 있다면 성도는 실패할 수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도도 어느 정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진지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은 '했다, 안 했다'를 세는 일이 아니라 행위 뒤의 사랑과 감사, 오랜 순종의 노력을 보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는 “칭의는 행위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는 은혜의 근거가 아니라 표지이며,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생명의 원리로서 거룩한 행위라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스미스는 내면을 중시하던 개신교 전통에서 내면이 행위로 공적으로 시험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대담했다고 평하고, 미국 개신교의 행동 지향성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덧붙입니다(이 평가는 스미스의 해석입니다).

1. 행위는 으뜸가는 표지
2. 이웃 판정용이 아니라 열매 확인용

4. 넘어져도 근본 방향은 잃지 않는다

5.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표

> **마태복음 7:16** ○
>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행위가 마음을 드러냄

> **요한복음 14:21** ○
>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됨

> **야고보서 2:18** ○
>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 말보다 행위

> **사무엘상 16:7** ◎
> 그럼에도 최종 판단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주된 표지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에 끌리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격정·정념(passion)
감정과 달리 몸을 크게 뒤흔들고 이성의 통제를 잃게 만드는 들끓음입니다.

성향(inclination)
보기만 하는 지성과 달리 대상에 대해 '좋다/싫다' 편을 드는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성향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의지, 생각과 판단 속에서 드러나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새 감각·영적 감각
거듭날 때 성령이 주시는 새 토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게 하는 감각입니다.

영적 이해
정보로 아는 개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마음이 함께 끌려 들어가는 앎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밖에서 잠깐 움직이시는 것(일반적 사역)이 아니라 성도 안에 머무르시며 그 본성을 바꾸시는 것(구원적 사역)입니다.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않아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율법적 겸손 / 복음적 겸손
양심이 고발당해 억지로 낮아지는 것 /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꺼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소극적 표지 / 적극적 표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없는 표시(2부) / 은혜로운 감정을 실제로 알려 주는 표시(3부)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체험의 순서나 다른 사람의 인정처럼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열두 표지의 공통 뿌리는 성도 안에 머무르시며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입니다. 그 중심에 '새 감각'이 있습니다.
- 감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 그 열매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는 끝까지 이어지는 삶의 행위입니다. 다만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표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편 · 수련회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 에드워즈와 신앙감정론 지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